

곳곳 멈춰선 ‘서민의 발’...버스 운행 해법은 ‘난감’

광주·전남 곳곳에서 ‘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이 멈춰서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노선 추가, 적자노선 재정 지원 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만 연료비 급등과 이용객 감소로 대다수 버스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평지마을과 봉정마을 주민들은 9일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에 시내버스를 배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두 마을을 유일하게 운행 중인 720-1번 마을버스가 최근 장기간 운행 중단에 돌입하면서 마을에 버스 한대도 다니지 않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720-1번 노선을 운영 중인 민간 업체 ‘광산버스’는 지난달 12일 광산구청에 재정약화, 운전원 부채를 사유로 3개월간 휴업신고를 했다.

버스회사 측은 1명의 전담 기사가 도맡아 운행 중인 노선인데 최근 이 기사가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 대체 인력이 없어졌고 매년 6000만~8000만원 적자를 내고 있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마을버스는 기존에도 휴업을 빈번하게 하고, 종점까지 채 가기도 전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차를 돌리는 등 ‘제멋대로 운행’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마을버스가 노선 운행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 들어올 가

광산구 평지·봉정 마을버스 스톱 주민들 구청 앞서 운행 촉구 집회

“나주 999번 대광여고 정차를”

남구 진월동 주민들 불편 호소

적자 심화 고심 속 운행 요구 빗발

목포시선 운행 중단 버스회사 고발도

능성이 없다”며 “역지로 적자 노선을 유지할 바에야 노선을 폐쇄시키고 시내버스를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버스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광산버스 관계자는 쌓이는 적자는 어떤 버스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광주 시내버스도 매년 대당 1억3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민간 영세 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또 광산버스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하루 120명씩 720-1번 노선을 이용했으나, 지금은 고령화와 코로나 여파로 절반 수준인 50-60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나 광산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버스 측은 “제멋대로 운행”을 했다는 건 결코 사실이 아니며, 노선 운행 일시 중단도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거쳤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광산구는 사업자가 먼저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해 오지 않는 이상 해당 노선을 없앨 순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마을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지마을, 봉정마을 주민들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월 4명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했다.

광주시는 노선 변경도,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못한 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선불리 시내버스 노선을 배차할 경우 마을버스는 경쟁력을 잃고 적자가 심화될 것이고, 이는 노선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이 포화 상태인데다 시내버스 또한 적자가 심해 추가 배차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4일에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비슷한 민원을 받고 간담회를 열었다.

민원을 제기한 광주시 남구 진월동 등 거주민 427명은 광주시에 “나주 999번 노선이 대광여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광주·나주를 왕복하는 데 불편하다”며 노선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와 나주교통 또한 999번의 노선 추가 정자를 꾸준히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연료비가 2배 이상 올랐고, 버스 이용객도 30~40% 줄어든 만큼 손실을 보전하려면 999번 버스의 광주 구간 승강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광주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만 내놓은 상태다. 나주시와 시내버스 조합,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노선을 증편할 경우 추가 적자가 쌓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목포시에서도 지난달 12일부터 시내버스가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 중단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목포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고발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재단,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일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3억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가 이날 현재 29일째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 대표가 자구책을 마련하긴 커녕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의존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 위성 잔해물 추락 경고에 광주·여수공항 항공편 잇단 지연

9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을 전후로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됐다. 이 시각 미국 지국관측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지면서다.

이날 광주공항에서는 출발 3편, 도착 3편 등 총 6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 제주행 항공기 3편이 모두 지연 출발했는데 낮 12시 10분 항공기는 1시간여만인 오후 1시 10분에, 오후 3시 10분 이륙 예정 항공기는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25분 항공편은 오후 4시 10분께가 돼서야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공항에서도 출발 2편, 도착 1편 등 총 3편이 지연됐다. 낮 12시 40분 김포행 항공편은 오후 1시 17분이 돼서야 이륙했고, 오후 1시 30분 항공편은 2시 21분에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국도교통부는 미국 측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낙하 추정 시간대인 낮 12시 19분 부터, 12시 50분께 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했다. 공항 관계자는 “이착륙 금지는 약 40분정도 유지됐지만, 항공기들이 잇따라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지연됐다”며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 광주공항으로 차례로 이동하는 항공편은 제주에서 한 번 밀리고, 뒤이어 김포공항에서도 지연되면서 오후 4시까지 지연운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민주화운동 대모’ 배은심 여사 1주기 추모제

아들 이한열 열사의 민주주의 열망을 이어받아 한평생 민주 투사로 살아 왔던 ‘민주화운동의 대모’ 배은심 여사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이한열기념사업회, 광주전남추모연대는 9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망월공원묘역에서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100여명이 참여해 고인이 영면해 있는 묘역을 둘러 현화 및 분향했다. 추모객들 중에는 생전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배 여사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

고인의 장녀 이숙례씨는 “1년간 율타리 속에서 얼마 생각만 하며 지냈는데, 바깥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고생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면서 “어머니를 함께 그리워해주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객들은 이날 “배 여사가 남기고 간 숙제인 ‘민주유공자법’을 완성시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지금도 희생된 열사들을 제대로 예우하지는 외침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열사와 유가족들이 싸우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 돌아오는 이한열 열사의 기일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올리고 추모하고 싶다”고 소원했다.

한동진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1987년 사랑하는 한열이를 먼저 떠나 보낸 뒤 어머니(배은심 여사)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풀어주시고 용기

를 불어넣어 줬다”며 “어머니의 유지인 민주유공자법을 완성시켜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 여사는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모친으로, 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91년 대학생 분신 정국부터 2016년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까지 민주화 시위·현장에 동참했으며,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끌기도 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무단횡단 60대 차에 치여 숨져

광주 도시철도공사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가 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여·69)씨가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B(여·61)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지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음주·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신호로 미루어 A씨는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한열 열사의 모친이자 ‘시대의 어머니’로 불린 고(故) 배은심 여사의 1주기 추모제가 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망월동 제8묘역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구 어린이집 집단 장염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지난달 광주시 동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생들의 집단 식중독(광주일보 2022년 12월 27일자 6면)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지목됐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6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광주시 동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관련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원생 27명 중 14명이 잇따라 장염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원생들이 어린이집에서 먹은 음식물 36종 중 3종에서 바실러스균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사·아동 등 26명을 신체 검사한 결과 아

동 20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교실, 조리실, 화장실 등 20곳을 검사한 결과 5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구는 원생들이 외부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원생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로바이러스는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